

산본 화산 오솔길

이치성

월간 「사람다운 사람」 편집국장

전철 이용하는 수도권외 휴식처

어딘가 떠나고만 싶다. 그러나 아무데나 가면 인파에 취해 심심만 피로해질 뿐 과감치가 되어 돌아오기 십상이다. 떠나기 전에 자신이 찾을 지방의 최신 정보를 알고 떠나야만 여행이 즐겁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세상이 좁아져서 웬만한 곳은 당일치기가 가능하지만 그만큼 위험부담이 따르며 시간 부족으로 꼭 찾아야 하는 곳을 대충대충 수박 겉핥기로 때우니 당일치기가 결코 경제적이 아님을 알아두자.

갈수록 인구가 많아지니 '최고의 관광지는 집 근처의 야산'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멀지 않아 '최고의 낙원은 집이다' 하는 말이 나올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수도권의 신도시 주변은 과거에는 하루를 즐길만한 곳이 얼마든지 있었으나 요즘은 돈이 있어야만 갈만한 곳이 점점 늘고 있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찾을 만한 곳을 개발하거나 야외생활에 능한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면 하이킹 장소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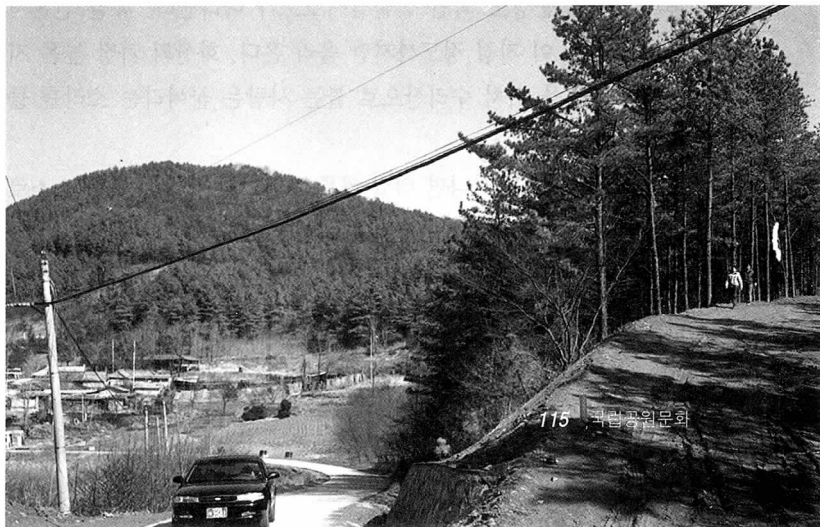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의 산본 3단지에서 시작되는 화산 오솔길은 아직까지는 때묻지 않은 오솔길이 있어 이는 사람만이 조용히 이용하고 있다. 이 코스는 귀로에 저수지를 거치게 되므로 한가하게 가을의 정취를 즐길 수 있어서 한번 맛을 들인 이들은 매년 찾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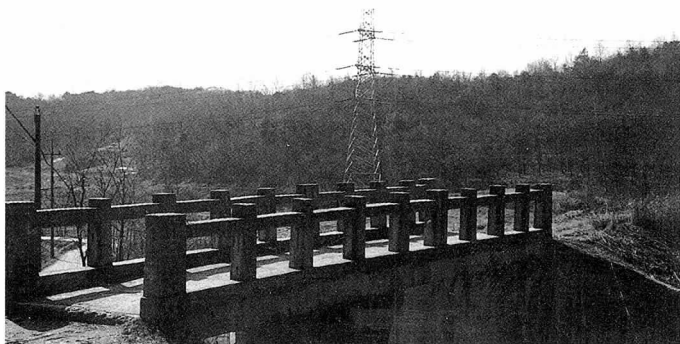
안산행 전철을 탄 후 산본역에서 하차하여 3단지쪽으로 가면 화산초등학교가 있다. 수리산은 워낙 진달래가 유명한 산이다. 그래서 그런지 3단지에는 김소월과 진달래를 연상시키는 소월아파트가 있다. 화산이라는 지명은 진달래가 활짝 핀 ‘꽃산’이라는 것이 이 지방 촌로들의 주장이다.

화산 하이킹은 소월아파트 371동 약수터 앞에서부터 시작된다. 처음에는 잡목밭 한가운데로 오솔길이 트여 있지만 조금 올라가면 산길 주변에 진달래나무가 많아 화산이라는 지명의 유래를 알 것 같다.

산길 주변에는 낙엽이 두텁게 쌓여 있어서 제법 깊은 산에 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능선의 하단부를 부드럽게 가로지르는 산길을 조금 걸으면 또 약수터가 나온다. 아파트단지의 약수터는 물을 받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이 약수터는 그렇지 않으므로 먼저 약수



터에서 식수를 구하지 못했으면 필히 수통을 채워야 모처럼의 하
이킹에 어려움이 없다. 나들이를 즐기고 이 약수터로 되돌아오거
나 저수지를 거쳐 산본역으로 빠지는데 2시간이 넘기 때문이다.



반짝이는 속달저수지의 푸른 물

약수터를 지나면 산길 오른쪽으로 수리산의 위용이 한눈에 들어
온다. 언뜻 보면 군사시설이 있는 봉우리가 최고봉일 것 같지만 알
고보면 그 오른쪽의 태을봉이 정상이다. 앞으로 뺨은 산길을 따라
간다. 좌우에는 잡목과 진달래나무가 섞여 있다. 두번째 약수터를
통과한지 15분정도 되면 산불감시초소가 나타난다. 휴일 산본지
구 주민들은 이 지점 정도까지만 올라 온다. 화산의 가장 높은 지
점이나 이곳을 거쳐 수리산으로 붙는 사람은 낀이라는 소리를 들
을 만하다.

산불감시초소를 지나면 터널 위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것이다. 이 터널 왼쪽에는 대야미역, 오른쪽에는 산본역이 있
다. 두 역 사이의 거리는 약 2.5Km. 왼쪽으로 눈길을 돌리면 대야
미역이 희미하게 보인다.

시끄럽지 않은 대야미역으로 하산 터널지대를 지나면 경사가 조금 급해진다. 이 지점에 이르면 누가 먼저랄 것이 없이 발길을 멈추게 된다. 산본지구보다는 대야미역 쪽의 시야가 트여 농촌풍경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화산 정상부로 갈수록 속달저수지가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 호수나 강은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어서 정서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큰 저수지는 아니지만 볼 것이 없는 산속에서 뻥히 내려다보이는 저수지는 아주 인상적이다.

오르막길, 내리막길, 공터 등 비록 작은 산이지만 갖출 것은 대개 지니고 있어서 지루하지 않다. 더구나 6월 중순이면 철쭉이 만개하여 야외나들이의 재미가 배가할 것이다.

산불감시초소를 지난지 1시간 가량 되면 화산 정상부에 도달한다. 붉은 깃발이 꽂혀있는 송림이 바로 정상부이다. 이 지점은 삼거리이다. 왼쪽길은 덕고개를 거쳐 저수지로 내려가는 길이고 오른쪽길은 산본 9단지로 내려가는 길이다. 이 지점에 서자 수리산 제1봉과 제2봉인 태을봉과 관모봉이 포개져 보인다.

산본으로 가는 길은 조금 싱거우므로 대부분의 하이커들은 저수지로 내려가는 길로 진입한다. 이 길로 30분 정도 내려가면 수리사로 가는 덕고개에 이르며 이 고개에서 속달저수지와 둔대초등학교를 거쳐 대야미역에 이르는 데는 약 1시간이 걸린다. 전철을 이용해 나들이를 즐길 만한 장소로는 최적의 장소여서 가을을 맞아 독자 제위께 이 코스를 권한다. ●

